□성명서□

연례행사가 된 국방부의 군장병 흰우유급식 감량, 올바른 급양정책인가!

국방부가 내년도부터 두유(이하 '콩즙')를 연24회 신규도입하고, 해당횟수 만큼 흰우유급식의 감량계획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FTA 수입개방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으로 촉발된 우유수급문제로 인해 낙농가의 원유(原乳)감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흰우유 감량계획에 대해 그간 성실히 군납 우유를 납품해 온 낙농가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군 급식의 지향점은 '군장병 급양향상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1]' 에 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100g당 단백질함량은 우유 3.2g, 콩즙 4.4g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100g당 칼슘함량의 경우 우유 105g, 콩즙 17g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류의 국산대두 사용비중은 5.4%(2019식품산업원료소비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밖에 되지 않으며,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콩즙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대두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콩즙시장의 70%이상을 2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체제이다.

근본문제는 국방부의 흰우유 급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행보에 있다. 그간 국방부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우유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 나가면서 쥬스류 등 他음료 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거 군장병 1인당 흰우유 250㎖, 365회 공급하던 것을 2014.11.1.일부터 200㎖, 456회(연간급식총량 유지)로 조정한 이래, 흰우유 급식횟수는 매년 축소되어 2020년도에는 405회까지 축소되었다. 지난 2014년 7월, 국방부가 수입과일 음료의 급식횟수를 늘리는 대신 흰우유용량을 250㎖에서 200㎖로 축소, 365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부의 협의에 의해 군장병 건강과 군납조합(낙농가)의 피해를 고려 향후 흰우유 연간급식총량을 유지키로 한 약속을 국방부 스스로가 뒤엎고 있다.

군장병의 체력은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군 우유급식을 통해 필수 영양소인 칼슘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성인 칼슘 권장섭취량(1일 750mg)에 비해 현행 군 우유 1일 평균급식량(약 220㎖, 칼슘 220mg)은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미군(美軍)의 경우에도 군장병 1일 평균 칼슘섭취량을 1,000mg으로 설정하고 탄산음료, 과일주스보다는 우유를 권장하면서, 우유를 급식량 제한없이 상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흰우유를 감량하면서, 대부분 수입산 대두를 사용하고 일부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콩즙'을 군급식에 도입하겠다는 행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군급식이 지향해야 할 과제이다. 250ml, 365회로 환원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흰우유 공급을 축소시켜 콩즙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급양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군장병의 체력증진을 위해 흰 우유 공급확대와 군장병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0. 11. 16(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

---

1)「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의 목적 :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